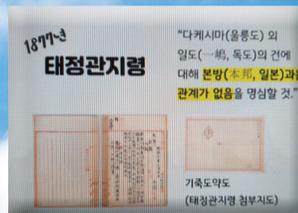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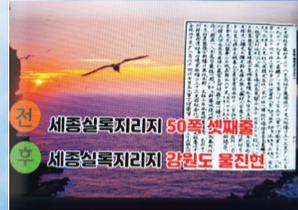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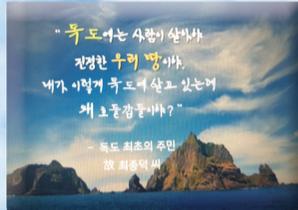




2019년(단기4352년) 12월 31일 / 14호

발행인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Tel.061-362-0890

독도는 우리 땅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띠의 해!
교수신문 사자성이 공명지조(共鳴之鳥)
서로를 이기려고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 쪽이 사라지면
함께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걸까
과연 무엇이 진짜 어묵이고 진주일까?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하얀쥐띠의 해!
반근착절(盤根錯節) 임중도원(任重道遠)
편자음에 동조 말고 사익보다 국익우선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 일본제품 불매운동
중단 없이 전진합시다.

어째서 독도가 느그 땅이냐?
독도는 우리 땅 대마도도 우리 땅
수출규제 비상시국 일본이 한 방 먹었다
49 싫어도 45지 말자
한일갈등 속에서도 방탄소년단(BTS) 한류는 무풍지대!

일본 여행 줄자 일본 지역 후폭풍 가시화되고
위기를 기회로"...티 규제가 약 됐다

번성번영 평화통일 승리는 우리의 것~~~!
만세만세만세만세 ~ 대한민국 만만세!

곡성문화원 가족 일동



함께해요 희망 곡성 2020년! 의도보다는 성과가 중요한 때



곡성군수 유근기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성과로 보람찼던 2019년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공표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민의 96.1%가 곡성인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민선 7기가 설정한 '군민 행복지수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쉽 없이 달려온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곡성만의 교육 생태계 조성!

곡성에서 기쁨으로 태어나서, 곡성에서 즐겁게 공부하고, 곡성에서 땀 흘려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학교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학교교육을 완성'하는 끈끈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꿈놀자학교에서 숲 교육,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극 프로그램, 청소년 성장 박람회, 청소년 의회, 시민캠프와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예술적 감성을 키우는 22세기형 교육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대별로 단절 없고 모두를 배려하는 차별 없는 복지 확산!

장난감도서관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 확충,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폭 확대, 다문화가족과 한데 어울리는 다가온 네트워크 구축, '환장할 청춘작당' 공유오피스 조성, 거닐며 노닐며 청년 정주 프로젝트, 청년 창업 및 일자리아업 등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 조기검진 예방, 목욕비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낭만과 힐링의 오고 싶은 곡성, 머물고 싶은 곡성 만들기!

간이역 피크닉 가든, 웨프 가든, 산책로 조성, 압록유원지 상상스쿨 운영, 물길, 철길, 숲길, 꽃길, 자전거길, 숲속레포츠길 등 스토리가 있는 순환형 매력길 만들기, 국도 18호선의 야간경관 조망지점 조성, 기차당뚝방마켓 공연장, 쉼터와 놀이터 조성, 10주년 맞이 장미축제 기간을 연장하여 골목골목마다 색다른 추억과 즐거움을 선사 할 것입니다.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자연 속의 가족마을 곡성을 위하여 동약산 생태 축과 섬진강 침실습지 복원사업으로 생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관광의 거점이 되도록 보존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특화농업 육성!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농업에서 전문적·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육성지원, 농특산물 소비·판매 시장 개척,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와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 직불금 지원, 벼 대체작목 육성 확대, 맞춤형 전문 농업 인력 양성, 농기계 안전기술 교육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농기계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및 창업농장 조성 등 농업 기술력을 높여줍니다. 곡성 토란과 멜론의 지리적표시제 마케팅 전략, 심청상품권 모바일 이용, 기차마을 플랫폼을 구축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특성화된 복합거점화-곡성형 콤팩트시티 기반 구축!

곡성읍권은 관계인구와 지역주민을 아우르는 체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옥과권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일자리 허브 조성,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허브센터 구축, 맞춤형 공공주택 착공, 국악명인 전수관 조성사업, 석곡권은 흑돼지의 명성을 되살려 곡성 대표 먹거리 브랜드 상품가치를 제고하여 자연생태와 특화 음식이 조화된 자연힐링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의도보다는 성과가 중요한 때입니다. 곡성의 백년대계에 마음과 뜻을 모아 주십시오. 2020년 군민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빛나는 일들로만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먼저 배려하고 먼저 감사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한 쥐처럼 성실한 모습으로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곡성군 의회의장 정인균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해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경제에도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 여러분들은 이런 내우외환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합심하며 최선을 다해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꿈과 희망을 이루어내는 힘은 역시 군민여러분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제8대 곡성군의회가 출범하고 반란점을 돌아섰습니다. 지난 시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고한 정착과 각종 현안사업, 조례, 제도에 대한 개선에 노력했다면 이제는 우리 곡성군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고찰과 방안들을 모색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대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인구감소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곡성군뿐만 아닌 전국 중소도시의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곡성군은 생명산업인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산물 자유무역의 가속화는 설상가상으로 우리군의 산업을 위축시키며 주민 소득 창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이농 현상이 극에 달해 3만 인구마저 무너지며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이 부족해 지역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같은 위기에 직면한 여러 나라 중 가까운 일본에도 인구문제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바에서는 농업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 전통 그릇이나 안경과 같은 제조업을 육성하고, 여성 친화도시를 위한 각종 제도과 조례를 재정하여 출산율 향상과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야마시는 적은 인구를 거점으로 압축하여 도심을 만들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빈집들을 정비하여 특색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어 도농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염원하는 군민의 절실하고 엄중한 요구를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곡성군의회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와 우리 사정에 맞는 올바른 처방이 무엇인지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며,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하여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민들의 인락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두루 살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본연의 임무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의회는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나아가 곡성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열린의정 실현을 위해 올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올 해는 경자년(庚子年) 흰 쥐의 해입니다. 쉬지 않고 부지런한 쥐처럼 올 한 해 근면 성실한 모습으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군민행복지수 1위 곡성!



곡성문화원장 곽광운

2020년 경자년 새해는 한반도 평화와 정치·경제·사회개혁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갈등과 혼돈의 시대를 물리치고 소통과 화합의 씨앗을 잉태하여 각종 난제들을 잘 해결해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곡성군민 모두 100세 시대 건강·행복·장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한 만남의 복이 온다'는 하얀 쥐띠 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 동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군민 모두가 열정과 보람 가득

책임감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전진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AI(인공지능)와 3차원 홀로그래피 기술을 결합 응용한 디지털화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책이 시급합니다.

군정은 곡성 특유의 멜론·토란 등 농특산물과 세계장미축제의 다양한 명품브랜드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글로벌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입니다.

문화관광은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가 돼 액션게임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 『아이돌』을 눈앞에서 감상하는 한류콘텐츠는 물론 AR(증강현실)과 VR(가상현실), MR(혼합현실)을 활용한 곡성체험 테마파크 조성, 앞서가는 최첨단 정보와 기술 활용으로 꾸러지는 스마트 관광기반을 구축하고, 국내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최첨단 관광시장을 개척하여 '섬진강기차마을·심청곡성 관광활성화'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대전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록 말과 일이 서툰 문화경험이 다른 다문화 가족과 자연속의 가족마을을 찾아온 귀농인 들도 모두 함께 곡성인의 '따뜻한 마음 여유로운 정과 멋'으로 하나 되어 나누며 즐기면서 '창의와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는 글로벌 곡성인'으로 새롭게 변성·변영하기를 믿고 소망합니다.

더불어 군민 모두가 교육, 보건, 의료, 인구,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건전한 파수꾼인 동시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함께해요 희망곡성!', '웃음꽃이 활짝 피는 군민행복지수 1위!'의 곡성찬가가 동네마다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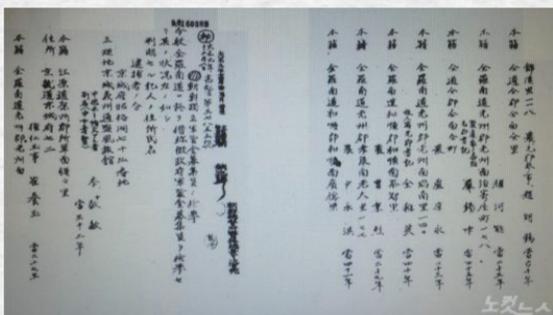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 운영 재정에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김재기 교수가 공개한 16쪽 분량의 조선총독부 비밀자료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자금이 전라도를 중심으로 모금됐다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다. 이 비밀문서는 1920년 12월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해 일본 외무성에 보고했다.



1945년 11월 중국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인들의 환국기념사진

이운호·노석정, 2개조 나눠 광주·곡성·화순·담양 등서 모금 활동

'전라남도에서 임시정부(假政府) 조선독립군 자금 모집원 검거'라는 제목의 비밀보고서로 북간도 신흥무관학교 한문교사 신덕영이 최양옥 등과 함께 광주 3·1운동을 주도한 이운호, 노석정 등과 비밀리에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개조로 나뉘어 광주, 화순, 곡성, 보성, 담양 등지에서 30여명으로부터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했다는 내용이다. 조선독립대동단 단원들이 일제 관료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농림주식회사'를 설립해 회원을 모집하고 불입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금했다. 전라도에서는 40여명이 참여했고 8천원 정도를 모금했는데 현재 가치로는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1919년 3·1운동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군 운영 재정에 전라도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조선총독부의 비밀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사진=전남대 김재기 교수 제공)

비밀보고서에 등장한 전라도 사람들!

조명석(광주), 조하능(광주), 노석중(광주), 김정연(광주), 정인병(화순), 양사형(화순), 양재국(화순), 윤영기(호천), 손동채(화순), 손여애(화순), 노상영(광주, 노석중 장남), 조병렬(화순), 윤영기(화순), 채상철(광주), 노기준(일곡), 민치도(화순), 주창업(화순), 노석신(일곡), 이운호(일곡), 이창호(일곡), 유덕례(일곡), 유계윤(광주), 유상규(광주), 고려위(광주), 정용택(군산), 박문용(보성), 최면식(면암 최익현의 손자), 유한선(광주), 박현택(화순, 2백원), 박종호(담양, 천원), 송원근(화순 오천원)

비밀보고서에 등장한 전라도 곡성 사람들!

신유선(곡성 삼십원), 정호필(곡성, 백원), 정원래(곡성, 백원), 고인식(곡성), 심유택(곡성, 1천오백원), 신대선(곡성, 일백원), 정호필(곡성, 이백원)

장부·기록 없어 체포돼야 규모 드러나... 실제 더 많은 사람 참여

김재기 교수는 "당시 독립운동자금을 내다 검거되면 모진 고문과 중형을 선고 받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낸 기록이나 장부가 거의 없다"며

"그래서 발각되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많은 돈을 내고 모금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실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보며, 전라도는 임시정부의 비밀금고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료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2019.04.10., 광주CBS 이승훈 기자)

역물하게 총살당한 조선인... 어느 일 본인 작가의 분노

강제동원·사쿠라탄기 방화사건 파고든 르포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 그의 삶을 담은 다큐

일제강점기 당시 후쿠오카현 지쿠호 지역 탄광. 강제동원의 모진 고통을 견디다 못한 어느 조선인이 탈출을 시도하다 일본인 노무관리자들에게 붙잡혀 폭행당한다. 아침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결국 그 조선인은 사망했다.

이 이름 모를 한 조선인의 역물한 사연은 끝내 규명되지 못하고 망각의 수순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일본인 기록 작가 '고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씨. 그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조선인을 때려죽인 일본인 노무관리자를 찾아내 자백을 받아냈다.

이처럼 '하야시 에이다이'씨는 평생에 걸쳐 '조선인 강제동원'의 참상과 그 속에 감추어진 폭력을 조사해온 기록 작가다. 하지만 그가 '일본인'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발을 딛고 있었다는 점 등에서 연구자들을 제외한 일반 대중에는 그 활약이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그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한국 대중에 알리고자 한 작품이 2017년 'EBS 국제다큐영화제'에 상영됐다. 다큐멘터리 영화 <기록 작가 하야시 에이다이의 저항>이 바로 그것이다.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광복절을 맞는 오늘, 역사적으로는 적절한 시의성을 가지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작품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참혹한 실상과 애환, 전쟁의 비인간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비국민(非國民)의 자식, 조선인 노동자를 이해하다

'하야시 에이다이(아래 하야시)가 조사한 후쿠오카현 민생과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후쿠오카 지역에만 17만 1000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다. 그중에서도 후쿠오카현 '지쿠호' 지역 탄광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소 광업' 등 전범기업에 의한 악명 높은 조선인 강제동원과 착취가 이루어진 곳이다. 노동자 중에는 강제 연행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의 어린아들도 있었다. 조선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아리랑 부락의 막사 같은 오두막에는 무려 800명이 수용됐다고 한다. 당시 하야시의 부친(하야시 도라지)은 '고미야하 치만구'라는 신사의 신관으로 있었는데 이렇듯 지옥 같은 노역장에서 도망쳐오는 조선사람들을 숨겨주고 치료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분위기는 조선인을 도와주면 '국적(國賊)' 혹은 '비국민(非國民)'이라는 말을 피하기 힘들 정도로 조선인의 아픔이나 차별에 대해 냉담했다고 한다. 결국 조선인을 도와준 행위는 일본 경찰 당국에 적발되었고 하야시의 아버지는 연행돼 모진 고문까지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부모님의 삶의 방식은 하야시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국적', '비국민'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조선인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을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로서 똑같이 '비국민의 아들'이라는 비난을 감내해야만 했던 하야시 본인. 두 사람 모두 '일본제국'이라는 국가의 폭력이 낳은 희생자였다. 하야시는 이때 느낀 권력에 대한 '저항심'을 토대로 전쟁을 위해 타국 땅에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처지와 아픔을 이해했다. 하야시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이 어떤 폭력에 시달려야 했는지에 대해, 어릴 적 자신이 친하게 지냈던 조선인 광부 '안용한'씨의 증언 녹취를 들려준다.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돈이 없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호수 탄광의 노동자. 안용한씨의 녹취에는 당시 일본 노

무담당자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폭력의 실상이 담겨있다.

대일본제국 군인은 밥도 안 먹고 싸운다. 이런말을 하면서 때렸어... 대일본제국 군인은 전쟁에서 친구가 죽으면 그 뒤에 숨어 적과 싸운다. 너희들(조선인 노동자들)은 한 명 죽었다고 몰려서 울고 있으니 그래서야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영화 중, 안용한 씨의 녹취 부분)

녹취록 속의 안용한씨는 동료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자기들에게 일본 노무담당자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내뿜으며 매질을 했다며 울분을 토한다. 하야시는 안용한씨 같은 조선인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때의 일을 결코 잊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들이 얼마나 고통에 사무쳐 있었는지를 대신 이야기해 준다. 그는 영화를 통해 강제동원의 현장을 보여주려고도 노력한다. 실제 탄광의 갱도 입구, 조선인 숙소가 있었던 자리,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기 위해 오르내렸던 일명 '아리랑 고개' 등 과거의 현장을 보여주며 실증의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하야시는 폐암으로 거동이 힘든 상황에서도 조선인 광부들의 유골이 묻힌 '타가와 휴가 묘지'와 '아소 요시쿠마' 탄광 인근을 걸으며 그들을 추모했다.

그들은 서러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세상을 떠난 광부들의 외침이 들리는 듯하네요.

하야시의 나지막한 회한이 적막하고 스산한 요시쿠마 탄광터를 스쳐간다. 참고로 후쿠오카현 게이센마치에 있는 '아소 요시쿠마 탄광터'의 무연고 묘지에는 504구의 유골이 발견, 상당수가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 유골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소 그룹'은 탄광 및 강제동원과 관련 없다는 발뺌을 지속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기록과 증언들은 <강제연행·강제노동-지쿠호 조선인 광부의 기록>, <사라진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등 하야시가 집필한 르포를 통해 세상에 공개돼 있다.

일본인의 전쟁책임과 원죄

영화를 통해 하야시는 시종일관 일본인의 책임과 원죄를 거론하면서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해 일본인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자문한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일'이라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한 책을 냈을 때는 일본 우익들로부터 협박 전화까지도 수시로 받았다는 하야시 에이다이. 영화 속에서도 이미 폐암에 걸려 거동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는 '이것이 마지막 승부'라며 최후의 불꽃을 태워낸다. 만년필을 들지 못해서 손가락에 테이프를 붙이고 글을 쓴다. 항암제도 중단하면서 말이다.

병이 악화되는 것을 알지만 지금 써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나의 싸움.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으로 별세했다. 그가 생전 남긴 저서는 <강제연행·강제노동-지쿠호 조선인 광부의 기록>, <증언 사할린 조선인 학살사건>, <지쿠호·군함도-조선인 강제연행을 돌아보다>, <실록 증언 다치야라이 사쿠라 탄기 사건-조선인 특공대원 처형의 어둠> 등 57권에 달한다. 2017년 8월에는 그가 직접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 사본 6000여 점이 국가기록원을 통해 공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최우현(herocwh) / 편집 김예지(jeo)

독립군 자금 비밀문서 공개
1920년 총독부 경무국장이 작성, 일본 외무성에 보고
참여한 전라도 주민들

수출규제 비상시국 일본이 한 방 먹었다

평행선 걷는 韓日 관계, 일본제품 불매 운동 여파 '지속'

다케다·코와, 주력 OTC 직격타...작년 3분기 실적 바닥

약국가·소비자 보이콧 열기 여전...매출 회복 '미지수'

NO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조치에 나서면서 촉발된 민간 차원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반년이 지난 현재 까지도 여전히 동력을 잃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191억 달러)가 1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하다.

당초 불매운동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던 일본산 의약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일반약의 경우 유통 창구인 약국가가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소비자들 역시 이에 호응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팜뉴스(<http://www.pharmnews.com>), 이효인 기자)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의 태도변화



2019. 12. 17.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회의로 양국 국장급 정책대화가 일본에서 열렸다. 일본 측은 지난 7월 실무회의 때와 달리 예비양 생수와 커피 등을 준비해 놓았다고 한다. 일본 대표단은 회의 시작 전에 입장해 서서 한국 대표단을 기다렸으며 수석대표인 이다 부장은 회의실 밖에서 있다가 한측 대표단 입장 직전 회의실로 돌아와 한국 측을 맞았다.

지난 7월 열렸던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때 열렸던 실무협의회에선 창고 같은 공간에서 대중 설명회라고 프린트 해 붙이고 넥타이는 물론 슈트도 걸치지 않은 채로 냉대했던 모습을 아직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무리 저래도 저게 본심이 아니라는 걸 많이 겪어봐서 알 것 같다. 외교라는 게 힘의 논리고 일본은 역사자체가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른 군림과 굴종만 있었으니 말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맥주시장은 완전히 사라졌고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평생해야 한다



일본이 원하는 한일 관계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 같다.

수출규제라는 액션만 취해도 꿈벽 넘어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큰 벽이라는 걸 이제서야 느낀 것 같다. 한일 양국간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일본제품이 예전처럼 명성을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우리 국민 중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본 불매운동은 평생 해야한다고 말하고 있으니깐요.(출처: <https://diomani.tistory.com/332> [DIOMANI])



일본에서 본 한국 日 반한 찬바람 속 한류는 무풍... 韓 이미지 세대격차도

올해 한일갈등 속에서도 일본 내 한류가 '무풍지대'였다고 전했다.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공연이 매진 행진을 기록하고, 트와이스가 NHK 홍백가합전 3년 연속 출연을 확정하는 등 일본 내 한류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일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9월 28~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만2000명이 참여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일갈등이 한창이던 지난 9월 28~29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7만2000명이 참여한 것도 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한일관계 뉴스 보면서도 케이팝 즐기는 일본 20대... 아는 형님으로 한국어 공부

최근 몇년간 일본 내 반한 기류 확산에도 일본 20~30대 이하 젊은 세대가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도 한류와 무관하지 않다. 일본 규슈대학교의 '아시아태평양 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교류했던 규슈대 학생들도 기자단과 만나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냈다.

일본 정치권에 목소리 내기 위해서라도 민간교류 살려야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 수는 안 줄어든다고 한다. 일본인들이 여전히 한류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한일 갈등이 깊어질수록 민간 차원의 교류는 확대해야 한다. 일본 정치권이 일본 내 반한기류를 이용하거나 일부 일본 미디어가 내놓는 한국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의 영향을 막기 위해서다.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류를 안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 좋은 의도의 행사도 일본에서 여는 행사는 홍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일관계는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더 이해할 수 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고 했다.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 백번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다.(출처: 가고시마·히토요사=공동취재단,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반도체 현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 "과거 실적이 미래 성공 보장 못해" 새로운 미래 개척 당부

반도체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인 'GAA(Gate-All-Around)'를 적용한 3나노 반도체는 최근 공정 개발을 완료한 5나노 제품에 비해 칩 면적을 약 35% 이상 줄일 수 있으며, 소비전력을 50% 감소시키면서 성능(처리속도)은 약 30% 높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장에서 "과거의 실적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역사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우리 이웃, 우리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100년 기업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자"고 말했다.(출처: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일본 여행 줄며 규슈 등 일부지역 후폭풍 가시화

가고시마현청 국제교류과는 한일 기자교류 프로그램으로 가고시마시를 방문한 한국 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9~10월 한국관광객 수가 전년동기 대비 약 65% 줄었다"며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한일관계 악화로 한국인들의 일본 여행이 줄자 일본 일부 지역의 관광업 타격이 현실화한 것이다.

한국 D램 반도체·소재기업 날았고, 일본도 선방 왜?

반도체·소재기업 주가 韓 상승, 日 회복... 실패한 日 보복 조치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최고 2배 이상 급등했다. 일본 생산업체들도 최대 고객인 한국으로의 수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대부분 주가가 회복됐고 최고 20% 넘게 뛴 기업도 있었다.

증권·반도체업계에서는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타격을 입히려던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가 사실상 실패했으며, 일본 소재 기업들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4분기부터 세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쳐 관련 기업들의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수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본 기업 해외공장 등에서 소재를 공급받아 생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정부의 지원 아래 소재 국산화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위기를 기회로"...日 규제가 약 됐다

우리나라는 '일본 수출규제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솔브레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불화수소 가스(에칭가스), 불화폴리이미드 공장을 신설하는 등 일본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을 국산화하려는 노력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효성은 탄소섬유 공장 증설에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도 친환경자 부품공장 신설에 3000억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소부장 분야 국일 움직임을 기회로 본 해외 기업의 러브콜도 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소재기업 MEMC 코리아는 실리콘웨이퍼 생산공장을 준공했고, 반도체 장비회사 램리서치는 한국에 R&D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제4회 곡성 효문화상 수상



제4회 곡성 효문화상(2019. 3)은 교육부 문// 투철한 교육관을 갖고 곡성교육발전에 앞장서고 40년간 후학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류승표 선생님(곡성읍 새터 1길)이 수상하였고, 사회복지 부문// 군청 공무원으로 지역 사회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모범이 된 신봉균 과장(곡성군청)이 받았으며, 문화예술부문// 지역문화 예

술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모범이 된 공로를 인정받은 이양우 농약 전문기(삼기면 통명산길)와 김리원(석곡면 석곡리) 선생이 영예로운 곡성효문화상을 수상하였다.

곡성문화원 구남회 이사 전남문화원상 수상

제 11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 행사가 전남 22개 시·군 문화원장을 비롯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1월 05일 오전 10시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전남 향토문화의 전통과 창달에 공이 많은 인사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남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남문화원상'에는 곡성문화원 구남회(전 곡성군의회 의원, 왼쪽 두번째) 이사님이 수상했다. 오래 전부터 심정의 효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원 사업에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향토문화 활동에 공헌이 많아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된 것이다. 곡성문화원 가족의 이름으로 박수를 보낸다.



오로지 경학(經學)에 치력(致力)하여 수많은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인물



2019년 12월 20일(금). 우리 고장 곡성군 입면 금산리 출신 한학자 '경와 엄명섭(1906년~2003)' 선생님께서 향년 98세의 일기를 마칠 때까지 삶의 흔적이 오롯이 살아 숨 쉬는 '경와 사고'를 바탕으로 그 분의 학문탐구와 향촌생활의 덕행을 회고해 보고, 탁월한 위상을 재정립해 보는 뜻 깊은 '호남문헌세가학술대회'가 열렸다.

경와 엄명섭 선생님은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시대를 거쳐 조국의 광복과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도학의 단절이라는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저서로『童蒙讀本諺解·擊蒙要訣諺解·明心寶鑑諺解·孝經諺解·小學諺解·四書三經諺解』6책의 諺解書와 『四書三經讀書記疑』, 그리고 『舜山日記』와 『敬窩私稿』를 편찬하는 등, 오로지 경학(經學)에 치력(致力)하여 900 여명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 헌신하신 인물이다.

이번 '호남문헌세가학술대회'는 공명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해설하는 경학(經學)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곡성 영월읍시 가문의 빛나는 발자취, 그리고 곡성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이 학술대회에서 '경와 엄명섭의 유학계승과 심성수양'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전주대 이형성 교수님, '경와 엄명섭의 수환의식과 수기복례'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전주대 이은혁 교수님, '경와 엄명섭의 향촌생활'에 관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조선대 김기림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무썽 오늘날의 소중한 '호남문헌세가학술대회'가 곡성 특유의 전통문화 계승과 선진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군민의 효경친찬웃음생활문화 운동에 앞장서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 한 해를 보내면서 「곡성 영월읍시 금산서사 기탁 고문헌」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야말로 매우 뜻깊은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지역문화 발전의 주역이 되어주신 한국학호남진흥원 이종범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엄찬영 박사를 비롯한 후학·후손들에게 곡성문화원 가족들의 뜻을 모아 큰 치하의 박수를 보낸다.

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곡성독립운동유공자 설초(雪樵) 김기순(金奇順)선생 건국훈장 애족장 공훈 발굴

설초 김기순 선생의 순절내용

선생의 본관은 김해 김씨이며 탁영 김일손의 후손으로 아버지 흥두와 어머니 진주 소씨 사이 셋 아들 중 둘째아들로 1862. 7. 15일에 옥곡면 이문리 용두마을에서 태어났다. 김기순(金奇順) 선생의 이명은 김용명(金容明) 김설초(金雪樵)라고도 불렀다. 선생은 타고난 성품이 소박하고 호방하여 비분강개의 뜻을 지니셨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부로 살았다.

선생께서는 1910. 8.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케 되자 "나라가 망했으니 백성으로서 죄스러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을 결심"하였으나 임금(고종황제)이 살아계시니 곧 복군(復君)될 날이 오겠지 하며 마음을 돌린 후 미친 사람처럼 가장하여 옥과 지역(옥과, 겸면, 오산, 입면, 삼기 등)을 돌아다니며 "왜놈과 친일파 및 매국노들을 죽이자"라고 10년간이나 외치고 돌아다니며 항일투쟁을 하였다.

고종황제께서 갑작스레 1919. 1. 21일에 승하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국장기간 내내 집 뒤에도 석단(石壇)을 쌓아놓고 대성통곡하였다. 선생께서는 고종황제 인신일(1919. 3. 3)에 옥과의 진산인 설산(雪山)에 올라 북향 4배하고 내려와 선영(先塋)에 하직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이제는 나라도 망하고 임금까지 돌아가셨으니 무엇을 바라리오"하며 동년 3월 7일(음 2. 6) 밤에 칼로 목을 세 번 찔러도 죽지않자 다시 배를 갈라 순절(殉節)하니 향년 58세로 생을 마쳤다.

설초 김기순 선생의 유공 발굴 경위

설초(雪樵) 김기순(金奇順) 一名 容明)선생에 대하여 2013년 4월에 후손인 김휘웅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들던 중 우리 지역에도 일제강점기 때 기개(氣概)를 보여 준 훌륭한 "애국지사"가 또 계셨는데도 우리지역에서는 모르고 있었구나하는 생각에 늦게나마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이 지역민들의 도리"라 생각되어 2016년 5월부터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선생에 대한 자료발굴에 나서게 되었다.

그동안 설초 선생에 대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와 또, 후손(김용일, 휘웅, 흥기, 영수)들의 집안에 소장된 자료를 하나하나 모아보니 모두 15종이었다. 이 자료 중 몇몇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료가 어려운 한자로 기재되어있어 이를 번역하는 데는 시간과 어려움이 뒤 따랐으나 후손들의 후원과 지원으로 설초 선생의 항일순국 내용을 토대로 2018년 7월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하였다.

이후 정부로부터 "항일순국 및 대한민국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 한 공"을 높이 인정받아 2019년 3. 1절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건국훈장 애족장」의 서훈(敍勳)이 내려짐으로서 선생께서는 민족의 해방도 보지 못하고 순절(殉節)하신 100년 만에 비로소 넋을 위로받고, 명예를 되찾게 됨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옥과는 옛 부터 충절의 고장임을 일깨워주고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라 생각하니 발굴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곡성 독립운동유공자 설초(雪樵) 김기순(金奇順)선생께서 건국훈장 애족장을 타시기까지 숨은 공로자// 옥곡면 미술관로 171-36번지에 거주하는 김형수(010.3613.2440) 향토사학자, 곡성문화원 회원

제5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 공모

곡성문화원에서 곡성군 경로효친의 실천과 문화예술교육에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제5회 「곡성효문화상」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효행부문, 사회복지부분, 문화예술부분, 교육부문 등 4개 분야로 군민의 귀감이 되는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 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입니다.

1. 추천부문

부문	인원	추천대상
효행부문	각 부문별 1명	경로효친 사상이 투철하며 우리 민족 전통의 “효”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부분		지역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문화예술부분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앞장서며 군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교육부문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곡성 교육 발전에 앞장서며 후학 양성을 위한 노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개인 및 단체

2. 시상내용

- 각 부문별 선정된 분에게는 상장과 상패 수여

3. 추천서 접수 및 선정

가. 후보자 추천자격

- 각 부문 : 곡성군민 또는 곡성을 연고로 5년이상 활동한 단체 및 개인

나. 접수기간 : 연중 상시

다. 접수처 : 곡성문화원

전남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곡성문화센터 3층)

☎(061) 362-0890 / 팩스(061) 363-7300

이메일 gs0890@kccf.or.kr

4. 제출서류

가. 추천서, 공적조서 및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나. 추천서는 곡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s-cultur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5. 발표

가. 곡성문화원홈페이지 (<http://www.gs-culture.or.kr>)

발표 및 수상자에게 개별통보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중·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운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름이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골짜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칭찬웃음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홍보
- 향토자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나라 문화재 지킴이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주민극단 마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문화재청 202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VR



과거(過去)로 가서 과거(科擧)보자!! 찾아가는 **문화재VR** (가상현실)

찾아가는 문화재VR · 곡성향교 워킹맨 · 명륜당 보드게임 · 예술가와의 만남

2020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 기간 : 2020년 3월 ~ 11월
- * 장소 : 곡성향교 또는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
- *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 주요 내용 : 찾아가는 문화재VR, 곡성향교 워킹맨,
명륜당 보드게임, 예술가와의 만남
- * 주최 :  곡성군
GOKSEONG COUNTY
- * 주관 :  곡성문화원
Gokseong Cultural Center
- * 후원 :  문화재청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전라남도
JeollaNampo

